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돼지 가격 대 폭락

미국의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10월말 미국의 돼지가격은 생돈 파운드당 28센트에서 21센트로 하락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돼지가격은 72년 4월 이후 26년만에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현재의 생돈 생산원가는 파운드당 43센트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전문가의 표현대로 "A FREE FALL(자유 낙하)"현상 이었다. 지난 10월말 도축두수 역시 2백만두가 넘어서서 5주 연속 2백만두가 넘는 사상 최장 연속기록을 보였다. 반면에 부분육 도매 가격과 소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양돈인 자조금 예산 5,360만불

미국 양돈인 자조금 위원회는 내년도 자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6%(3백만불) 줄어든 5,360만 불로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자조금은 미국양돈협회(NPPC)의 활동과 관련해 4,230만불을 배정하고, 950만불은 주 양돈 협회로, 자조금의 3%는 양돈인 자조금위원회의 사무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들 자조금의 61%는 소비홍보 프로그램에 쓰이고, 26%는 연구와 교육, 13%는 소비자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일본 돼지고기 하반기 가격 전년수준

일본의 올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수준

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본 농수성은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수급전망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가계 소비는 쇠고기 소비감소와 함께 전년수준이나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공 및 외식은 가공품 수요가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전체적으로 전년수준이나 또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돼지 비육돈 출하는 전년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수입량은 상반기와 비슷하게 수요에 맞춘 수입이 지속, 재고가 많았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산 돈육 안전성 비상

일본의 자국산 돼지고기업계에 안전성에 관한 비상이 걸렸다. 일본 후생성이 최근 발표한 '97 국내산 및 수입산 돈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 국내산 돈육 5개 검체에서 항생물질이 검출, '국내산 신화'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검역소를 통해 국내산 및 수입식육, 양식어패류, 액란 등에 대해 97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수입식품은 모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3년 연속 초과하지 않은 반면 국내산 돈육은 5개 검체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후생성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생산단계에서 동물용

의약품 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 감시를 당부했다.

일본내 돈육업계에서는 이러한 검사 결과에 대해 “‘국내산은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심각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생산쪽에도 HACCP 개념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 신제품「TOKYO-X」소비자에 인기

동경 축산시험장(동경 청해시 소재)이 작년 10월에 선보였던 돼지 신제품 ‘도쿄-X’에서 생산된 돈육이 최근 도쿄의 고급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신제품 돼지는 지방의 질이 좋은 중국의 「북경흑돈」, 근육질이 세밀해 육질이 양호한 영국산 「버크셔」, 적육에다 적당한 지방을 가진 미국의 [듀록]의 3 품종을 교배시켜, 컴퓨터를 이용, 우수 유전자만 추출하여 합성종의 신제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품종에서 생산된 돈육은 일본의 대표적 고급백화점인 미쯔코시에서 일반 돈육보다 10%정도 높은 가격에 팔고 있으나, 진열즉시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제품 돼지의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일반 돼지에 비해 저조한 번식률과 민감한 성격 때문에 사육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사육 농가들이 선뜻 사육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 돼지고기 수출 보조금 인상 않기로 U

EU위원회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희의를 열고 돼지고기 수출 보조금 등에 대한 인상을 검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U위원회는 현재의 돼지 사육두수의 과잉은

양돈산업이 지난 2년간 호황을 맞이해 충분한 수익을 올려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앞으로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업자 스스로가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수출 보조금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집약적 양돈산업에 경종

미국 일부에서 양돈업의 지나친 규모화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역내의 양돈업 집약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 주목되고 있다.

EU는 보고서에서 최근 역내 양돈업의 집약화가 뚜렷해지면서 환경 및 전염병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는 공해 해소 및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가들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항생제 사용금지 운동

EU는 사료에 항생제 사용금지 운동을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의 발육촉진을 위해 사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것으로 EU는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로 키운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인체내에 간접적으로 섭취된 항생제로 인해 인체내에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발생, 실지로 질병 발생시 항생제가 무효력화되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CP, 대만 종돈시장의 30% 석권목표

대만의 닭고기 가공, 계열화 시장의 선두주

자인 CP(Charoen Pokphand Enterprise(Taiwan) Co., Ltd.)는 대만의 많은 대규모 양돈업자들이 구제역 발생으로 양돈업을 포기하는 사이에 양돈업에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05년 까지 대만내 축산업계의 최대 기업이 될 계획이다.

CP의 계획에 따르면, CP는 두 곳의 양돈장에서 GGP 모돈 1,200두를 사육하면서 계열화농가에 분양할 PS종돈 28,000두를 생산할 계획이다. CP는 양돈용 사료를 공급하고, 계열화농가들에게 사양, 경영, 질병 예방 등과 같은 기술을 지원하며, CP의 유통채널을 통해 "CP PORK"라고 이름붙인 브랜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생산 시스템을 통해 CP는 2003년까지 대만내 종돈시장의 약 15%, 2005년까지는 약 35%의 종돈시장을 점하게 될 것이라 한다.

CP의 궁극적인 목표는 "4가지의 35%"이다. 즉 이것은 브로일러와 재래종 브로일러, 산란계, 양돈 분야에서 각각 시장의 35%를 점유하는 것이다.

돼지고기 가격, 연초보다 2배나 뛰어

최근 대만의 행정원농업위원회(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 등이 발표한 양돈농가수는 금년 5월말 현재 작년 11월말보다 8.4%가 감소한 18,739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인 96년 11월말의 조사와 비교하면 26.1%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양돈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물량이 감소하고 여름철에 수요가 늘어나 지난 6월하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연초에 비해 돼지고기 가격이 2배이상 폭등했으며 이와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돈농가에서는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

으로 보고 출하를 꺼리고 있어 향후의 가격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대만은 오는 2002년 이후 구제역 위기를 탈출, 수출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산 돼지고기 일본서 호평

일본 돈육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일본의 수입 돈육시장은 미국, 한국, 멕시코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키타큐슈 식품박람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멕시코산 돼지고기는 특히 규격이 정교하고 품질이 뛰어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멕시코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도 급증, 지난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보다 141.9% 증가한 2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96%가 냉동이어서 역시 냉동 위주인 한국산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육류수출입협회의 한 관계자는 "품질과 가격을 앞세운 멕시코산 돈육의 추격이 매우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 수입돈육 시장을 놓고 미국, 한국, 멕시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돼지고기 가격 폭락세 계속

네덜란드의 돈육(75~95kg)가격이 또다시 대폭 내려 kg당 1.26~1.30길더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돼지(23kg)판매가격도 20길더로 하락되었다. 몇몇 도축장에서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최저선에 도달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돈육공급량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축업자들은 현재 러시아 구호품으로 돼지

고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는 EU의 돈육 수출위치를 강화하여 미국·캐나다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EU회원 국가내의 업체들의 협력을 통해 세계 무역관매로를 구축·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EU보조금으로 체코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대폭 증가되면서 체코정부는 EU의 돈육 보조금 수출정책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현재 EU에 대한 특혜 돈육수입 관세 15%를 정상 수입관세인 40.9%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덴마크 돼지고기 신(新) 스펙 개발

덴마크 돈육수출기구연합(DS)은 최근 돼지고기의 새로운 스펙 개발에 성공,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덴마크 식육연구소는 테이블미트용 덴마크산 돼지고기 Frozen loin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식, 업무용으로 일본 수입업자를 통해 일본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스펙 Frozen loin은 콜드체인이 급속도로 발전, 일본 유통업자가 냉장돈육 취급에 관심이 많은 점을 노려 수요에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발됐다고 한다.

이 상품의 특징은 ▲돼지 지육중량이 80kg 이상으로 예전보다 10%이상 무거우며 정육 수율은 59% ▲pH 5.6으로 PSE 발생이 없고, 보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근내 지방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 기호에 적합 ▲JPCS 칼라 3으로 지방 1.5%, 단백질 23%, 수분 75%이며, 6시간 후 드립 로스는 최대 10%이다.

아르헨티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개방

아르헨티나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을 개방했다. 미국 고어 부통령은 지

난 10월 20일 아이오와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감소량에 따른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돼지고기 수출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여러해 동안 접촉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전염을 우려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미국 농무성은 지난 97년 돼지고기 수입으로 PRRS의 유입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서를 아르헨티나에 제출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돼지콜레라 박멸계획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백신접종을 포함한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출산업으로서 유망한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수의국 조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많은 수의 자돈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폐사되며, 이것이 돼지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농업성은 수출산업으로서 유망한 양돈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박멸을 계획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은 4종류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새끼돼지는 생후 6~7주째와 9~10주째의 2회, 번식 암돼지와 종모돈은 정기적으로 연 1회, 미경산돈은 8개월령 또는 첫종부 직전에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다. 또한, 모돈에서 자돈으로의 감염방지에 중점을 두고 처음으로 번식농가 40호에 백신접종을 하기로 했으며, 더욱이 이 계획은 감염된 가축의 강제도태와 농가의 발병보고 의무, 백신접종 기록보존, 돈사소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養豚**